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거대 종괴로 인한 복부 통증을 신동맥색전술로 치료한 1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내과

이자영 · 오국환 · 오지은 · 임은주 · 이은실

서론: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은 낭종의 팽창으로 인한 복부 통증을 흔히 호소하며 이의 치료를 위해 에탄올을 이용한 경화요법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치료, 수술적 감압술 등이 시도되고 있다. 신동맥색전술은 다낭신의 대량출혈에 주로 사용하여 성공한 예가 있으나, 종괴에 의한 통증 치료에 이용한 사례는 드물다. 본 증례에서는 거대 종괴로 인한 복부팽만과 복부통증이 동반된 다낭신 환자에 있어 신동맥색전술로 종괴의 감소와 통증이 조절된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2세 남자 환자는 1994년에 다낭신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진단 받은 후 1999년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환자는 간헐적인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2001년부터는 복부팽만과 통증의 강도가 심해져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며, 한달 사이 3차례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다. 2001년 9월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수평측면에서 신장의 최대 지름은 좌측신장이 12×10 cm, 우측신장이 12×11 cm이었으며, 다수의 작은 낭종들이 신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1년 10월 코일을 이용한 양측 신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고 시술과 관련한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의 복부팽만과 복부통증의 증상은 완화되어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게 되었으며, 13개월 후 찍은 복부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최대 지름은 좌측신장 8×7 cm, 우측신장 9×8 cm으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결론: 본 증례에서 볼 때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에서 거대 종괴로 인한 심한 복부통증의 치료로 신동맥색전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